

인명 영문 로마자표기법: 새 전자주민증 사용에 대비하여^{*,**}

양 병 선
(전주대학교)

Yaang, Byungsun. 2008. Guideline for How to Write Korean Personal Names with the English Alphabet: To Prepare for the New Korean Citizen's ID Card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6(1), 193-216. On February 10, 2006,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nounc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d a plan to use the new Korean Citizen's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and introduced the ID card on August 30, 2007. After additional studies the government will decide the time to change the old plastic ID cards into new electronic one. The new electronic ID includes Romanized spelling of Korean name on the back. Before the government adopts the new ID card, they need to set up a list of guidelines for writing Korean personal names with the Roman alphabet since there are no official guidelines for the Romanization of Korean personal na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guideline for how to write Korean personal names with the English alphabet, which can be adopted for public documents such as the new ID cards, passports, credit cards, student ID cards, etc. and should reflect the English pronunciation and writing system, so-called, syllable-based Englishization.

주제어(Key Words): Korean Identification Card, Korean Romanization, personal names with English alphabet, Romanized spelling for Korean name

* 본 논문은 2008년도 전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을 받았음.

** 본 논문은 2006년 5월 19일~20일 제주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대한언어학회, 한국음운론학회, 한국현대언어학회, 제주국제언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6 언어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및 2008년 2월 14일~15일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한국언어학회, 담화·인지언어학회, 한국생성문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8년 겨울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필자가 양병선(2002, 2003a, 2006)에서 제안한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의 모음표기방안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에서 여러 가지 comment를 해주신 분들과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1. 서론

영어는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 기술언어이며 동시에 21세기 글로벌시대의 세계어와 국제공통어이며 인터넷 언어이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은 여권, 크레딧 카드, 학생증 등 공용문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는 2006년 2월10일 새 전자주민증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새 전자주민증에는 한글성명과 더불어 영문 성명을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 8월 30일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대체하게 될 새 전자주민증의 시제품을 완성해 선 보였다. 일반 신용카드 크기의 전자주민증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이 담기고 유효 유통이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정보, 주소 등 개인정보를 내장된 IC 칩에 수록하고, 뒷면에는 증 발급번호, 한자이름과 영문 이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에 공무원과 시민 등 1만 명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전면적인 보급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영어가 국제어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에서 새 전자주민증에 영문성명을 병기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새 전자주민증이 실용화되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인명 영문로마자표기의 통일 이다.

2006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선보인 전자주민증에 적힌 ‘홍길순’의 영문이름표기는 Hong Gil Soon으로, 2007년 8월에 선보인 전자주민증 시제품에는 Hong Gilsun으로 달리 표기 되어 있다. 2007년 8월 시제품은 현행 ‘국어의 로마자표기법’(문화관광부 2000)에 따라 표기한 것이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영문이름표기가 1년 여 사이에 달리 표기되고 있다. 반면 외교통상부에서 관장하는 여권의 영문이름표기는 Surname과 Given Name(s)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으나 이름의 경우 두 글자를 떼어 적고 있으며 표기방식은 개인이 원하는 대로 표기토록 허락하고 있다. 즉 성과 이름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이름 ‘길순’은 Gil Soon/Kil Sun/Kil Soon/Gil Sun으로 개인이 원하는 표기로 적되 이름을 떼어 적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7월 7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에 의해 개정·고시된 현행 정부안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관광부 2000)에 따르면,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며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은 허용(제3장 제4항)하였으며 그동안 써온 표기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제3항 제7항),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하기로(제3항 제7항(2)) 하였다. 하지만 성의 표기는 현행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이 시행·공포된 지 8년이 되지만 ‘성씨의 로마자 표기 시안’(김세중 2001)에 대한 공청회만 열었을 뿐(2001년 6월20일 국립국어연구원 강당)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 아직까지 통일된 성명의 영문로마자이름 표기방식 및 표기순서가 정하여 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전자주민증에 영문이름을

병기한다면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새 전자주민증시행에 앞서 선결해야 할 과제가 영문성명표기방법을 확정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본고는 성씨의 로마자표기(양병선 2002), 한자 인명 로마자 표기(양병선 2003a), 한글이름 로마자표기(양병선 2006)에서 제안하였던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에 따른 인명 영문로마자(즉 영자)표기에 대한 표준을 제안 하여 새로운 전자주민증, 여권, 크레딧 카드, 학생증 등 공용문서에 사용토록 함으로서 더 이상 영문성명표기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영문이름을 통일시키 데 일조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는 성명 영문로마자 표기에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 §3은 성명 영문로마자표기에 필요한 영어1음절어의 철자와 발음의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고 §4는 §3에서 제시한 영어철자와 발음을 기준으로 한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에 기초한 성명의 표기 순서 와 표기형식 및 표기방식을 제안하고 성명에 사용되는 756자의 영문이름의 음절단위 영자표기일람표를 제시하며 §5는 성명영문로마자표기의 통일을 위한 제안을 함으로서 결론에 가름 한다.

2. 성명 로마자 표기에서 고려할 사항

2.1. 성명로마자표기의 표준안을 정할 것인가 ?

새 전자주민증 및 여권, 크레딧 카드, 학생증 등 공용문서에 사용할 성명 로마자 표기 시 제일 먼저 고려할 사항은 영문이름에 대한 표준안을 정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외교통상부(2004: 25)의 ‘여권업무 실무 편람’에 의하면 영문성명은 ICAO규정에 따라 한글이름을 음역하여 영문 스펠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참고자료로 현행 ‘로마자표기일람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외교통상부(2004: 48)의 여권업무 실무 편람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글발음을 영문으로 표기하는 표준표기법이 없어 민원인들이 원하는 영문스펠링을 여권 상에 기입하고...” ‘여권상의 영문성명정정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민원인이 원할 경우 영문성명을 정정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정부의 통일된 표준안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여권, 신용카드, 학생증 등 각종 증명서에 자신의 영문이름

1) 이러한 현행 정부안은 인명의 영문표기가 각각각색으로 표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2002-2005년 국가대표선수 2,122명의 로마자(영자)표기의 실태를 조사한 필자의 연구(양병선 2005)에 의하면 ‘강, 경, 관, 교, 금, 령, 병, 영, 우, 운, 응, 의’ 12자는 한 명도 현행표기법에 의해 적지 않고 있으며 ‘건, 근, 덕, 명, 백, 섭, 유, 윤, 해, 허’는 5가지로, ‘국, 귀, 성, 혁, 현, 형’은 6가지, ‘연’은 7가지, ‘전, 정, 석’은 8가지, ‘경’은 10가지로 각각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다.

표기를 개인적으로 정하여 다양하게 적고 있는 실정이다.(양병선 2005, 김혜숙 1998, 2001, 서정수 1991, 김세중 2001 참조)

영문이름의 새표준안을 정하면 기존의 영문이름표기와 달라 혼란이 심하며 개인의 이름을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새 전자주민증의 영문이름표기도 표준안을 정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표기토록 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진 이름이나 주요 학자, 예술가,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표준화에 따라 표기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에 기존의 성명표기대로 표기토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성명의 영문표기를 통일하여 21세기의 정보화, 국제화 시대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하며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간에 성의 표기가 달라 혼란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²⁾ 정부차원의 성명 영문로마자표기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안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³⁾.

2.2.. 성과 이름표기의 영문 로마자표준은 달라도 되나?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자기 성명을 끄찍이도 소중히 여기면서 이름을 욕되게 않게 하고자 목숨까지 바치곤 하였다. 곧 이름은 사람의 생명이요 인격으로서 육체나 영혼과 동일시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성명관을 종교처럼 숭화시키기가 하였다(김문창 1991: 76).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영문이름표기에 대해서는

2)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문표기명(Roh Moo Hyun)을 President No가 아닌 President Roh로 표기해 달라고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 중앙정보국(CIA)에 1년 이상 요청하였다는 신문기사와 농협이 ‘니’의 영문표기를 잘못 표기하여 4억5천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잘못된 인명의 로마자표기는 외교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따라서 한글을 지키고 우리의 경쟁사상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인명영문(로마자)표기의 표준화가 절실하다. 성씨 표기의 표준화에 대해 허철구(2000)는 i) 표기법의 효율성, ii) 정보검색의 용이성, iii)공통된 조상을 갖는 성의 기본 정신, iv)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표기인 로마자의 목적인 신분확인을 위해서 표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 정해진 표준화에 대해 지키고 지키지 않음은 각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둘 수 있을 것이다.

3)이럴 경우 현행 ‘국어의 로마자표기법’과 다른 ‘인명영문(로마자)표기’가 있어 이중적 표기법으로 인한 규정상의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국어의 로마자표기법’도 성씨를 달리 규정하기로 하였으며 이름의 관용표기를 허용하였다. 또한 전자법을 따르는 현행 표기법의 원칙과 더불어 제3장 제8항은 한글복원을 전제로 한 전자법도 이중적으로 규범화 하였다.

4) 한국 사람들의 성은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0년 11월 1일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0 인구주택 총 조사’중 성씨 및 본관 집계결과(2003년 1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귀화인을 제외한 우리나라 성씨는 4,179개 본관 및 286개 성씨

각양각색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43.75%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영문이름표기를 사용함으로써(김혜숙 2001) 한국사람의 경명사상을 무색케 하고 있다.

현행 ‘로마자표기법’은 성과 이름의 표기를 별도의 표준안에 따라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글인 한글은 성과 이름 공히 같은 표기규칙에 따라 적는다. 따라서 영문성명표기도 성과 이름을 같은 표준화 또는 원칙에 의해 표기하여야 한다. 만약 새 전자주민증, 여권, 학생증 등의 공용문서에 성과 이름의 영문표기를 각각 다른 표준안에 의해 별도로 표기한다면 이에 따른 혼란은 가중될 것이며 한글의 기본 원칙과 한국인의 경명사상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성씨, 한자이름, 한글이름 모두 같은 표기법에 따라 영문표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로마자표기’와 다른 성명 영문 로마자표기 또는 인명용 영문 로마자표기가 별도로 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다.

2.3.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할 것인가, 영자로 표기 할 것인가 ?

새로운 성명 표준안을 정하는데 고려할 사항으로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할 것인가 아니면 영문로마자(즉, 영자 혹은 영어스펠링)로 표기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외교통상부의 여권업무 실무편람의 ‘여권발급신청서’에는 영문성명을 영어스펠링을 이용하여 표기하도록 명시하였지만 참조하여야 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로마자로 표기한다고 명시하여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답으로는 로마자의 개념과 영자가 다름을 인식하고(양병선 2002, 2003a, 2006, 준비중 참조) 일본어로마자표기법이 너리에 심어준 잘못된 고정관념

가 있으며 본관 및 한자에 상관없이 한글표기에 의한 성의 수는 183개이다(양병선 2002). 고대부터 개화기까지 우리의 전통적인 이름은 고유어식이었으나 신라 초기에 한자식 성 제도를 실시하고 8세기에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한자식으로 개명하여(김문창 1991: 100) 한자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해 대법원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로만 지어야 출생신고가 접수된다. 현재 인명용 한자는 모두 5,151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한자와 상관없이 한글의 음으로는 190개의 성씨를 포함하여 총 482자가 인명에 사용되고 있다(양병선 2003a 참조). 반면, 한글 이름은 1447년 간행된 ‘석보상절’에 처음 기록되어 사용한 것으로(김문창 1999: 86) 추정되며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을 맞이하면서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70년대 한글 쓰기 전용 운동에 힘입어 한글세대가 자라나면서 한글이름을 선호하는 풍토가 생겼으며 90년대 초에는 아기이름을 귀엽고 예쁜 한글로 짓는 것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한자이름은 성씨를 합하여 대부분 3글자이나 최대 4글자이지만 한글이름은 소리글자임으로 뜻을 지니다 보니 글자 수가 늘어나기 마련이었으며 길어지는 이름이 등장하였고 이로 인하여 행정상의 불편과 어색한 일이 벌어졌다. 따라서 1993년 2월 25일부터 성씨를 제외한 이름자는 5자 이내로 하는 ‘호적사무처리지침’이 시행되었다(호적법 제49조 제3항). 한글이름에 사용되는 글자는 총 547자이다.(양병선 2006)

을 버리는 것이다(김복문 2005: 75). 영어스펠링을 이용하여 영문로마자표기를 하는 일반인들의 인식에 따라 영문이름표기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성명의 로마자 표기’라는 용어대신 ‘성명의 영문로마자표기’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과학적이며 우수한 한글과 더불어 로마자 표기가 필수적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로마자 사용언어 중 영어가 국제어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굳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새 전자주민증에는 영문이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로마자표기로 인명을 표기하여 혼란을 부추기기보다, 영문이름 혹은 영자이름표기를 하는 것이 우리 글인 한글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추상적인 로마자를 이용한 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결국 Esperanto어와 같이 일반인들로부터 외면당하며(양병선 2003a) 인명로마자표기의 혼란을 부추기고 한글의 세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⁵⁾. 따라서 새 전자주민증의 사용에 앞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자를 기준으로 한 성명용 영자표기를 제정하여야 한다. 즉 영어 알파벳 26자만을 이용하여 우리의 이름을 표기하는 영문로마자표기 또는 ‘성명영자표기’ (Englishization, Aglicization)⁶⁾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2.4. 음소단위 혹은 음절단위로 표기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네 차례의 정부 공식 표기법과 제안된 40여 종(이상역 1994: 136)의 국어의 로마자표기는 음소단위로 표기하고 음절 간의 발음변화를 표기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진사법과 전자법)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음소단위 표기법은 음절단위로 이루어진 한글의 원칙을 무시한 표기이며, 음절의 경계를 명확히 나타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표기가 다양하게 표기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현행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전라도’, ‘신라’ 등의 지명은 표음주의 원칙(제1장 제1항)에 따라 소리나는 대로 Jeollado, Silla로 표기하나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제3장 제4항 (1)). 따라서 ‘전라도’와 ‘신라’가 이름인 경우는 Jeon Rado 또는 Jeon Ra-do, Sinra, 또는 Sin-ra로 달리 표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 따라서 전자주민증, 여권, 크레딧카드, 학생증 등 공용

5) 영어가 국제어로 인정받고 있는 반면, 우리는 문자 없이 문맹의 상태에 있는 민족이나 언어를 위해 이들의 말을 표기하는 문자로서 한글의 세계화(정원수 2007)를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를 위해 영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정원수(2007)의 ‘은누리 한글표기법’, 고등과학원 최재경교수의 영어알파벳 발음을 위한 새로운 한글자음, 외국어회의 한글표기를 위한 겹쳐쓰기 안(리의재 2007) 등이 제안되고 있다.

6) 음소표기원칙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기 때문에 “현행 표기법은 새주소법령

문서에 표기할 영문이름표기는 음소단위로 표기할 것이지, 음절단위로 표기할 것이지 정하여야 하며, 성과 이름, 이름과 이름사이의 음운변화를 표기에 반영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필자가 양병선(2002, 2003a, 양병선 2006)에서 주장하였듯이 1음운 1기호 표기보다는 1음절 1표기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는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1음운 1표기의 원칙에 따르면 음운 사이의 음운변화에 대해 논의를 하여야 하나 음절단위로 영문이름을 표기하면 음절범위를 넘어서는 음운변화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⁷⁾ 음소단위 표기보다 음절단위로 표기하자는 필자의 주장은 음절단위로 이루어진 우리글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다⁸⁾. 한글은 중국어나 일본어와는 달리 음절언어라기 보다는 알파벳언어로 분류된다. 하지만 한글의 글자는 알파벳이 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영어와는 달리 글자 한자 한자가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한글의 특징은 음절언어로 분류되는 중국어와 일본어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름자는 모두 2개 혹은 5개 미만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호적법 제49조 제3항). 또한 지명과는 달리 이름의 경우에는 음절간의 음운현상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소단위표기보다는 음절단위로 표기 하여야 한다.

2.5. 경제성, 언어미학적성, 이해하기 쉬운 표기

지금까지 로마자표기의 경제성을 논의할 때 단순히 글자의 수가 적은 것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글자 수는 적지만 대다수가 외면하여 사용하지 않고 혼란만 가중 시키는 표기방법은 경제적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필자의 성명 로마자표기의 실태조사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양병선(2005)에 의하면 모음자roman 이루어진 글자인 ‘아, 이, 오, 우’의 경우 성의 표기에서는 절대 외자로 표기하지 않고 각각 <ah, lee, oh, woo>로 표기하며 이름자의

에서 정한 도로의 명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외국인은 물론 한국인도 표기에 어려움”(예: Euljiro (을지로) Sejongno (세종로) Bongcheon 1(il)lo (봉천1로) 각각 다르게 표기)을 느껴 모두 Eulji-ro, Sejong-ro, Bongcheon 1(il)-ro 로 통일하여 표기토록 행자부 혼란명칭 로마자표기 지침변경(2007.12.11)이 마련되었다.

7) 현행 ‘로마자표기법’도 성명표기는 성과 이름, 이름과 이름사이의 음운변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음절단위 표기법이다.

8) 김미경(2006: 58)에 의하면 ‘한글은 알파벳처럼 24개의 기본 음소단위의 글자를 사용하면서도, 음성인식의 지각단위인 음절을 표기단위로 하는 체계단위’ 라고 하였으며 정태충(2005: 54)은 ‘한글의 표기상의 최대 특징은 음절을 기본단위로 한다’며 음절단위로 이루어진 한글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다.

경우에도 외자를 피하는 경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i, j, k, 丁, ㅍ’와 개음절의 ‘ㄱ’은 각각 <ee, u/uh, yu, oo/woo, yoo, oh>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표기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제안된 적이 없는 표기이다. 즉 일반인들은 글자 수가 적은 것 보다는 자신의 성명이 영어철자와 발음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을 선호하며 언어미학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영어의 뜻이 어색한 것은 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성명의 영문표기를 하여야 한다.

또한, 성명용 영문로마자표기는, 언어학적 타당성과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한글정도만 이해하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표기하는데 쉬운 표기이어야 한다. 현행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처럼 전문적인 언어학적 지식 없이 이해하기 힘든 표기는⁹⁾ 지양하여야 한다. 성명용 영자표기는 아무런 언어학적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영어로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2.6. 영어식 표기 혹은 한국어 발음기준 영문로마자표기

영문이름표기를 할 때 또 다른 고려 사항으로는 영어식표기와 영문로마자(영자)표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조기 영어교육 열풍이 불고 외국인이 진행하는 영어회화 중심 영어교육이 자리 잡으면서 요즈음엔 아이들마다 자신의 영어식 이름을 갖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 취업, 이민 등의 목적으로 장기간 생활하는 경우 영어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권업무 실무편람’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성과 이름사이 혹은 이름 뒤에 영어식 이름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LPGA에서 활약하는 Michelle Wie(위성미), Christina Kim(김초롱), Grace Park(박지은), 캐나다 프로레슬러 Gale Kim(김계일) 으로 표기하는 경우이다.

또한 영어식 음절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에 있는 단어를 활용하여 그대로 표기하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영<young> 유<you> 박<park> 등이 있다. 반면 필자가 꾸준히 제안한 ‘영문로마자(영자)표기’가 있다. 한문표기 혹은 한자표기처럼 영어알파벳을 우리글의 원칙과 원리에 맞게 활용하여 적는 표기이다. 영어식 음절표기는 우리글의 원리나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영어의 단어를 그대로 표기하는 반면 영자를 이용한 영문로마자표

9) ‘국어의 로마자표기’는 한글의 음운현상 및 언어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표기법으로 국어의 자음동화(제3장 제1항 1), ‘ㄴ, ㄹ’이 덧나는 경우(제3장 1항 2), 구개음화(제3장 1항 3), 거센소리(제3장 제1항 4), 된소리(제3장 제1항 4 붙임)를 이해하여야 하는 어려운 표기이다.

기는 한글대신에 영어알파벳을 이용하여 우리의 글의 원리나 원칙을 고려하여 표기하는 것으로 한글이름의 체계와 원칙을 고려하여 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식표기가 아닌 영자표기를 하여야 한다. 또한 새 전자주민중, 여권 등 공용문서에 영어식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표기는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도 고려하여야 한다(자세한 논의는 §4.1 참조).

3. 영어철자와 발음의 상관성

성명을 영어알파벳을 이용하여 표기하여야 하는데 대한 대다수의 반론은 영어의 철자와 발음이 규칙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자세한 논의는 유만근 2000, 권재일 2000, 양병선 2002, 2003a, b, 2006 참조)

하지만 필자는 양병선(2008)에서 The Carnegie Mellon University Pronouncing Dictionary(CMU Dictionary) 1음절 15,297개 단어에 나타난 모음자와 발음간의 연관성을 음절형태와 stress의 여부, 즉 폐음절/개음절, 자음자의 앞/뒤에 어떤 자음이 오는지, 그리고 <모음자>-<자음>-<E># 구조 등을 별도로 고려하여 분석하여 1문자표기 <A> 96.02%, <E> 99.04%, <I> 97.97%, <U> 95.67%, <O> 91.7%를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양병선(2003b)에서 필자는 Hockett(1963)에서 제시한 문자적 1음절어(graphic monosyllable)의 1,700여 단어를 분석하여 모음자와 자음자의 철자와 발음사이의 규칙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양병선(2008)에서 분석한 영어 1음절어 모음자와 발음간의 상관성중 성명의 영자표기에 관련된 것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어 1음절어 모음자와 발음간의 상관성

- a. <-AA#>: 예가 없음
- b. <-AA+자음> 의 97.3%, <-AH#> 100%, <-A#> 95.8% /a/
- c. <-A+자음>: <-AH, AR>을 제외한 82.2% /æ/
- e. <EE+자음>: 89% /i:/
- f. <-EE#>: 100% /i:/
- g. <-E#>: 67.8% /i:/, 32.2% /e, ey/
- h. <-E+자음>: <ER>을 제외한 폐음절: 100% /e/
- i. <-I#>: 65.6%/i:/, 34.4% /ay/
- j. <-I+자음> <IR>을 제외한 폐음절: 93.7% /i/
- k. <-O#>: 87.9% /ow/ 12.1% /uw/
- l. <-O+자음>: <OH, OR>을 제외한 폐음절 57% /a/, 24% /ow/, 14% /ɔ/

- m. <-OH#>: 100% /ow/
 n. <-OO#>: 100% /uw/
 o. <OO+자음>: 77% /uw/, 20% /u/
 p. <-U#>: 100% /uw/
 q. <-U+자음>: <UR>을 제외한 폐음절: 88% /ʌ/
 r. <-UH#>: 100% /ʌ/

(1)의 규칙을 요약하면, <a>는 개음절에서는 /a/(ㅏ)로 발음되거나 받침이 있는 폐음절에서는 /æ/(ㅓ)로 발음된다. <e>는 폐음절에서는 /e/(ㅓ)로 발음되거나 개음절에서는 /i:(ㅣ)로 발음된다. <i>는 폐음절에서는 /i:(ㅣ)로 발음되거나 개음절에서는 /i:/ 혹은 /ay/(아이)로 발음된다. <o>는 개음절에서 /ow/(ㅜ)로 발음되거나 /uw/(ㅜ)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으며 폐음절에서는 /a, ow, ɔ/로 다양하게 발음된다. <u>는 개음절에서는 /uw/(ㅜ)로 발음되며 폐음절에서는 /ʌ/(ㅓ)로 발음된다. <ah>는 음절말에서만 나타나며 항상 /a/로 발음되고 <oh>는 /ow/로 발음되며 개·폐음절 모두에 나타나고, <ee>는 모두 /iy/로 발음되고 <oo>는 일반적으로 /uw/ 또는 /u/로 발음되며¹⁰⁾ <aa>는 개음절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폐음절에서는 /a/로 발음된다. 반면 <oe>는 일반적으로 /ow/로 발음되며 <ae> /ey/로 발음되고 <eu>는 <ew>와 같은 쌍으로서 <ew>가 모음 앞이나 어말에서 나타나는 반면, <eu>는 자음 앞에서 나타나며 /(y)uw/로 발음된다.

영어의 자음은 2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표기는 영어알파벳 22자를 이용하여 1자 표기(single letter) 22개, 2문자 표기(diagraph) 12 개 (ch, gh, kh, ng, ph, rh, sh, th, ck, dg, gn, wh), 3문자 (trigraphs) 표기 4개(sch, pph, rrh, tch)가 있다. 자음자는 모음자에 비하여 영어알파벳의 수가 많기 때문에 모음에 비하여 발음-철자의 관계가 간단하다. 이 중 국어의 로마자표기에 필요한 자음자는 <b, d, g, h, j, k, l, m, n, p, r, s, t, y> 이 있으며 이들의 음가는 알파벳과 동일하다. 2문자표기 <ch, gh, kh, ng, ph, rh, sh, th, ck, wh>는 각각 /tʃ, g, k, ŋ, f, r, ʃ, e, k, hw/의 음가를 나타낸다¹¹⁾. 3문자표기 <tch>는 15세기에 <chch>

10) 예외로는 blood, flood (/ʌ)만이 있을 따름이다. 현대 한국인은 /uw/와 /u/를 음소로 구분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oo>는 국어의 모음자 ‘ㅜ’의 소리와 같은 표기라고 할 수 있다.

11) 단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g>는 <ir>을 제외한 모음자 <e, i, y>앞에서는 /j/로 발음되며 <ir, a, o, u>앞에서는 /g/로 발음된다 (하지만 geld, gelt, get, gimp, gilt, gig, gift, gear의 경우는 /g/로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것을 고려하여 국어의 ‘김, 기, 길’ 등과 같이 ‘ㅣ’모음 앞의 ‘ㄱ’의 표기는 <k>로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를 대체하기 위하여 영어에서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Tchaikobsky, Tchebycheff (러시아), Tchambuli(파푸아), tchotchke (Yoddish)등의 외국어의 차용어에서 사용되고 있다(양병선 2003b). 이러한 영어 모음자와 자음자의 철자와 발음간의 상관성을 이용하여 한글의 모음과 자음체계에 따라 새 전자주민증, 여권, 크레딧카드, 학생증 등 공용문서에 사용할 수 있는 성과 이름에 공히 사용될 수 있는 음절단위 영문로마자(영자)표기법을 제안한다.

4. 인명 영문로마자(영자)표기법: 음절단위 영자표기법

4.1. 표기순서 및 표기형식

§2.4에서 언급하였듯이 영문성명을 표기 시 성과 이름의 표기 순서와 영미식 이름을 사용할 경우 표기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또한 대문자로 표기할 것인가의 여부, 이름사이에 띄어쓰기 혹은 하이픈(-)의 사용여부 등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홍길순’의 영문이름 표기를 표기 순서 및 표기양상만을 고려하면 <Hong Kil Soon>(현행 여권표기법), <Hong Kilsoon>(현행 ‘국어로마자 표기법’의 원칙), <Hong KilSoon>, <Hong Kil-Soon>(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허용), <Hong Kil-Soon>, <Hong, Kil Soon>, <Hong, Kilsoon>(한글학회 1984안), <Hong, Kil-Soon>, <Hong, Kil-Soon>, <Hong, KilSoon>, <Kil Soon Hong>, <Kilsoon Hong>, <Kil-Soon Hong>, <Kil-Soon Hong>, <KilSoon Hong> 등 15가지로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 처음 5가지의 표기양상은 성-이름순서로 적기 때문에 한국식 표기양상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 5가지는 순서는 성-이름 순이나 성과 이름사이에 쉼표(.)를 첨가하여 영미식이나 한국식을 약간 변형한 표기양상이고, 나머지 5가지는 이름-성순으로 표기하여 영미식이라 할 수 있다.

현행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서는(제3장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새 전자주민증 시제품에는 성과 이름의 순서로 적혀져있으며 이름은 붙여 적고 있다. 반면 외교통상부의 여권업무 실무편람에는 성/Surname란에 영문성을, 명/Given name(s)란에 영문이름을 적도록 되어있으며 영문이름은 각각 떼어 적고 있다. 또한 ‘여권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제2항 ‘여권업무관련지

12) 김혜숙(2001)에 의하면 18가지의 표기순서 및 양상이 있다.

침'에 따른 영문성명 정정업무처리지침(외교통상부 2004: 155-180)에 따르면 현지이름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이름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홍길동(Hong Gil Dong)을 Hong James Gil Dong, Hong Gil Dong James, 박아형(Park A Hyung)을 Park Ahnung Sylvia로 정정하였다는 사례도 예시하였다. 결혼 한 사람의 경우 남편성의 표기를 원할 경우 영문이름 뒤에 (W/O(Wife of) 남편성)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태충(2005)의 정음로마자표기법과 생산연구원 리의재박사의 한세표기법(정태충 2005: 254-257)은 이름을 붙여 적되 음절을 구분하기 위하여 글자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Hong GilDong). 특히 한세표기법은 외국어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탤릭체로 항상 적도록 하고 있으며(예: *Hong GilDong*) 대문자와 소문자를 같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음절구분을 위하여 한 칸 띄도록 허용하고 있다(예: *HONG GIL DONG*). 김혜숙(1998)은 일반인들의 표기방식의 선호도 및 이름자 사이의 음운변화에 따른 혼돈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Gil-Dong 방식이 좋다고 제안하고 있다.¹³⁾ 반면 국회의원 299명의 성명표기 양상을 분석한 정경일(1997)은 “우리식 표기순서를 따르면서 성과 이름을 분명히 구별하여 주고 ‘성명3자’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성명관을 나타내주며” 일반인이 선호하는(40.4%) HONG GIL DONG방식을 선호하였다.

여권, 전자주민증, 신용카드 등 공용문서에 영문로마자(영자)이름을 표기하는 것은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는 방식은 성과 이름을 혼돈하기 때문에 지양하여야 하지만, 한국인들은 성-이름 순서표기 방식을 선호 한다(정경일 1997, 김혜숙 2001). 따라서 한글학회(1984)안에서 제시하였듯이, 영미식이지만 한국식을 약간 변형한 방식인 성-이름 순서로 적되 성과 이름사이에 점표를 적어 앞에 적은 것이 성임을 명확히 하고, 이름과 이름을 붙여 적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미식 이름을

13) 한국인의 영문성명 표기 양상을 조사한 김혜숙(2001)에 의하면 영어영문 전공자의 82.5%는 성명의 표기순서를 영미식으로 표기하였으나 일반인은 96.1%가 성-이름순서로 표기하였다. 이름의 표기양상은 영어영문전공자는 Gil-Dong 방식 42.6%, Gildong 방식 25.1%, Gil-dong방식 16.7%, Gil Dong 방식이 15.2%에 이른다. GilDong방식은 0.4%뿐이었다. 반면 일반인은 Gil Dong 방식 83.7%, Gil-Dong 방식 11.7%, Gil-dong 방식 2.1%, Gildong 방식 2.0%이다. 일반인이 Gil Dong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권에 표기된 영문이름 표기 때문인 반면 영어전공자들은 이름을 묶어 쓰는 경우(84.8%)를 훨씬 선호하며 불임표를 이름사이에 적어 음절사이의 혼란을 피하고 싶어 하고 불임표 뒤의 두 번째 이름은 소문자보다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김혜숙(1998)은 이름표기의 양상은 Gil-Dong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름 뒤에 한 칸을 떼어 영미식 이름을 적도록 한다. 즉 외국어 이름의 Middle Name 형식에 따라 적는 것이다. 외국인들의 경우 Middle Name은 세례명, 처녀 때 사용하여 던 아버지의 성을 지칭하며 평상시는 약자 만을 사용한다. Full Name을 사용하는 경우에 만 온전한 표기를 사용한다. 한국인의 이름은 외국인의 Given Name과 같은 것이며 영미식 이름은 외국현지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름 뒤에 적어 Middle Name처럼 취급하여야 한다. 영미식 이름을 성 뒤에 적고 한국이름을 그 다음에 적는 방안도 있으나 이는 한국식이름보다는 영미식 이름이 Given Name으로 불리워 한국인이 표기하는 방식으로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영미식이름을 Given Name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주민증, 여권 등은 한국인의 공용문서이지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위한 공용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름을 Given Name으로 표기하여 앞에 적어야 한다. 결혼한 여자의 경우 남편의 성의 표기를 원하는 경우 현행 여권에서처럼(W/O (Wife of): 남편 성)을 표기하도록 한다.

이름을 표기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들은 이름의 음절을 구별하여 표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대부분 이름사이를 떼어 적거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적는다(김혜숙 2001, 정경일 1997). 또한 한세표기법과 정음로마자표기법처럼 음절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는 기존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이 음소단위로 적고 음절사이의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의 음절을 구분하기 위한 것 때문이다. 하지만 이름사이에 붙임표를 적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익숙치 않은 표기법이며 이름과 이름사이를 떼어 적는 경우에는 Given Name(이름)을 Given Name과 Middle Name으로 혼동할 수 가 있다. 따라서 Hong, Gil Dong으로 적으면 많은 외국인들은 Hong, Gil D.으로 인식하기 마련이다. 한세표기법과 정음로마자 표기법처럼 음절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 방법은 음절을 구분하고 인식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표기라 할 수 있으나(정태충 2005: 69-70), 한세표기법에서 언급하였듯이(제 2장 제2항) 대문자와 소문자를 같이 이용하지 않고 모두 대문자로 표기할 경우에는 음절구분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정태충(2005: §6.10)에서 지적하였듯이 i)외국인에게는 익숙치 않은 표기이며 ii) 정보기기를 쓸 때 sift-key를 자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 iii) 음절이 모음으로 만 이루어진 ‘아이’, ‘오이’, ‘이이’의 경우 <AI, OI, II>로 표기할 경우 음절을 구분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필자가 제안 하였던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에 따라 음절단위로 표기를 하게 되면 음절경계가 좀 더 명확하게 되어 음절을 붙임표로 나눈다거나 음절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 즉 이름사이의 음절구분이 명확하도록

음절단위로 표기한다면 현행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명시한대로 이름을 붙여 적어도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전자주민증, 여권, 크레딧카드, 학생증 등 공용문서의 영문이름 표기 순서 및 형식은 한글학회(1984)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성-이름-(미국식 이름)-(W/O 남편성)>의 순서로 적으며 성과 이름사이에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이름은 현행 ‘로마자표기법’의 원칙처럼 붙여 적도록(예: Hong, Kildong James (W/O Kim))한다.

하지만 크레딧카드나 학생증 처럼 성명만 영자로 적은 경우와는 달리 여권이 나, 전자주민증과 같이 영문이름표기를 적는데 공간이 충분한 공용문서에는 좀 더 자세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전자주민증 시제품처럼 Name: Hong, Kildong James (W/O Kim)<성, 이름 영미이름 (남편 성)>식으로 적는 방식보다는 현행 여권에 표기하는 것처럼 각각의 성명을 영어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즉 Surname: Hong, Given Name(s):Kildong, Middle Name: James (W/O Kim)으로 적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진 이름이나 주요학자, 예술가, 그리고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지금까지 표기하여 사용하였던 구표기를 괄호 안에 (old name: Hohng, Gil Tohng James) 당분간 적도록 하여 혼란을 극소화 하도록 한다. 이러한 불편은 성명의 통일을 위해 한번은 꼭 겪어야 할 불편함이며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의 혼란이나 불편함은 사라질 것이다.

4.2. 표기방식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완전히 표기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각 언어마다 음소 및 음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완벽한 영문로마자 표기는 가장 근접한 음운을 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를 목표언어로 설정하여 로마자로 표기할 경우 i) 양국 언어의 음가가 동일한 것은 등가성을 확보하여 표기하고 (예: ‘ㄷ’[e], ‘ㅈ’[æ], ‘ㅣ’[i], ‘ㄴ’[A]), ii) 음가가 동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근접 음을 수용하고 (예: ‘ㄱ’[o/ɔ], ‘ㅌ’[u/uw], ‘ㅣ’[i/iy]), iii) 근접 음이 없는 경우에는(예: ‘ㅡ’, ‘ㅍ’) 1대1 대응을 통한 규율을 정하여 표기하되(김복문 2005: 57-67), 기존의 표기법 중 일반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표기를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4.2.1. 모음 표기¹⁴⁾

14) 본 모음표기방식은 필자가 양병선(2002, 2003a, 2006)에서 꾸준히 제안하였던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의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i) 일반인에게 정착된 표기법을 가능

양병선(2006)에서 제시하였듯이, 성, 한자이름, 한글이름에는 한글 표준어의 모음 21자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 한글이름의 단모음의 표기는 음절의 특성에 따라 개음절(음절초에 자음으로 시작하며 모음으로 끝나는 글자), 폐음절(음절초에 자음으로 시작하며 받침이 있는 글자), 그리고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음절을 각각 구분하여 표기한다. 또한 §3에서 제시한 영어 1음절어의 모음자와 철자와의 상관성 및 양병선(2005), 김혜숙(2001), 김세중(2000)의 성명 표기실태를 고려하여 ‘표 1’과 같이 표기하도록 하며 이중모음은 한글의 특성에 따라 단모음에 반모음인 y, w를 조합하여 ‘표 2’와 같이 표기하도록 한다.

표 1. 단모음의 영자표기

단모음	개음절	폐음절	모음
ㅏ	ah ¹⁵⁾	aa ¹⁶⁾	ah(아)
ㅑ	uh	u	uh(어) ¹⁷⁾
ㅓ	oh	o/oh ¹⁸⁾	oh(오)
ㅕ	oo ¹⁹⁾	oo/woo	woo(우)
ㅗ	ee ²⁰⁾	i	yee(이)
ㅛ	ae	a ²¹⁾	ae(애) ²²⁾
ㅜ	eh	e	eh(에)
ㅡ	eu	eu	eu(으)
ㅣ	oe	oe	oe(외)

표 2. 이중모음의 영자 표기

이중모음	개음절	폐음절	모음
ㅑㅏ	yah	yaa	yah(야)
ㅑㅑ	yuh	yu	yuh(여)
ㅑㅓ	yoh	yo	yoh(요)
ㅑㅕ	yoo	yoo	yoo(유)
ㅑㅗ	yae	ya	yae(얘)
ㅑㅛ	yeh	ye	yeh(예)
ㅑㅜ	ui/ee	ui	ui(의)
ㅑㅡ	wah	waa	wah(와)
ㅑㅣ	woh	wo	woh(워)
ㅑㅑ	wae	wa	wae(왜)
ㅑㅑ	weh	we	weh(웨)
ㅑㅑ	wee	wi	wee(위)

하면 중요시하였으며 ii)음절사이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덜기위해 기존의 주장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5) 양병선(2002, 2003a, 2006)에서 제안한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에서는 개음절의 <ㅏ>의 표기를 <aa>로 표기하였으나 i) 영어에서는 <-aa>로 끝나는 1음절어가 없으며(양병선 2008) ii)일반인은 <-aa>표기보다는 <-ah>를 선호하며(김세중 2001, 양병선 2005) iii) 개음절과 폐음절을 구별하여 표기함으로써 이름을 같이 붙여 적는 경우 음절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으며, iv) ‘아, 어, 오’의 개음절이 모두 <-h>로 끝나는 간편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개음절의 <ㅏ>를 <ah>로 표기하기로 한다.

16) 영자표기 수정안을 제시한 여러 안 중 Palaeo-type에서 <aa>로 표기하자고 주장한 이후 Glosso-type(1869), Glossic (1870), Dimidium (1880), Simplified Spelling(1911), S. S. Readers (1915), Easy Spelling (1929), Anglic (1930)에서 /a/를 <aa>로 표기하자고 제안되었으며 (Zachrisson 1970: 48), Regularized English (Wijk 1977), New Spelling (MacCarthy 1969), Simplified Alternative Spelling (Rondthaler, Edward, et. al 1986)에서도 꾸준히 /a/를 <aa>로 표기토록 제안되어 왔으며 영어 모음자<aa>의 발음과 철자의 특징을 고려하여(1b) ‘ㅏ’ 폐음절을 <aa>로 표기한다.

붙임 1: 모음으로 시작하는 ‘우, 응, 옥, 운’ 등은 모두 <woo>로 표기한다²³⁾.

붙임 2: ‘니’의 경우는 한글이름표기의 경우에 ‘니, 의, 희, 흰’에서 나타나는데 ‘희’는 [히]로 발음되므로 <hee>로, ‘흰’ [히]로 발음되므로 <hin>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4.2.2. 자음 표기

양병선(2006)에서 언급하였듯이, 성, 한자 이름, 그리고 한글이름에 사용되는 자음자는 모음자 앞에서 ‘ㄱ ㅋ ㆁ ㄷ ㅌ ㄹ ㄴ ㄷ ㄷ ㄹ ㅁ ㅂ ㅃ ㅅ ㅆ ㅈ ㅉ ㅊ ㅋ’

17) Norman Conquest 이후에 프랑스어에 영향을 받아 사용하게 된 고대영어 표기 <eo>는 eon, leon, neon, peon의 예가 있으며 /iya/('이아')로 발음된다. 이 이외에도 jeopardy(/e/), leopard(/e/), people(/iy/), yeoman(/ow/), escutcheon, luncheon, puncheon, truncheon(/ʌ/)등 다양하게 발음된다. 따라서 국어의 ‘i’를 <eo>로 표기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며 영어 1음절어에서 <u>의 88%가 폐음절에서 /ʌ/로 발음되기 때문에(1q, 1r참조) ‘i’를 폐음절에서는 <u> 개음절 및 ‘어’는 <uh>로 표기한다.

18) 양병선(2002, 2003a, 양병선 2006)에서 제안 한 바와는 달리 폐음절의 경우 ‘오, 요’는 각각 <o, yo>로 표기한다. 이러한 이유는 i) 실태분석에서(양병선 2005) 보여주듯이 ‘ㄱ, ㅋ’의 경우 대다수가 <o, yo>로 표기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ii) 개음절과 폐음절의 음절구분을 위하여 개음절과 폐음절을 달리 표기하도록 한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을 경우 음절경계가 모호해져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 ‘손’의 표기는 원칙에 따르면 <son>으로 표기하여야 하나 ‘션’으로 발음될 염려가 있어 <sohn>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곧/곳, 돈, 돛, 록’등의 표기도 <got, don, dot, rok>등으로 표기할 경우 미국식 영어의 경우 각각 ‘갸/갸, 단, 닷, 락’ 등으로 발음될 염려가 있을 수 있으나(II) 참조) 영국영어에서는 ‘곧/곳, 돈, 돛, 록’으로 발음 될 수 있고 대다수가 <oh>보다는 <o>로 표기하기 때문에 <got, don, dot, rok>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단 개음절과 ‘오’는 영어 1음절어에서 100% /ow/로 발음되는((1m) 참조) <oh>로 표기한다.

19) 개음절에서 ‘t’의 표기를 <u>로 표기하는 방안도 있으나 i) <u>의 표기보다는 <oo>를 선호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ii) 다른 음절이 연이어 표기될 경우 혼동하여 ‘t’로 읽힐 염려가 있고, iii) 개음절 1음절어에서 100% /uw/로 발음되며((1n)참조), iv) 표기의 단순화를 위해 달리 표기하기보다는 97%가 /uw/와 /u/로 발음되는((1o)참조) 폐음절과 같이 <oo>로 표기한다

20) 개음절의 경우 ‘i’의 표기는 1음절어의 약 35%정도가 /ay/로 발음되어((1i) 참조) 문제가 있는 <i>보다 <ee>로 표기하도록 한다.

21) 영어1음절어의 폐음절 <a> 82.2%가 /æ/로 발음된다((1c)참조). 따라서 폐음절의 ‘a’의 표기는 <a>로 표기한다.

22) 외래어 차용어인 Gaelic, maelstrom(Dutch), Phaedre(Greek), 이름 Mae에서는 /ey/로 발음되나 Latin어 maenad는 /i/, 이탈리아 maestro에서는 /ai/로 발음된다(Venezky 1999: 191). 하지만 ‘a’는 <ae>로 표기하는 것이 정착된 관계로 <ae>로 표기토록 한다.

23) 영어1음절어에서 <oo>나 <u>로 시작되는 단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붙임 2: 음절초에서 ‘ㅅ’은 <s>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모음 ‘ㅣ’와 이중모음 /y/ 앞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므로 받침이 있는 모음 ‘ㅣ’와 이중모음 앞에서 ‘ㅅ’은 <sh>로 표기한다(예: ‘신, 심’은 ‘shin, shim’)²⁷⁾.

붙임 3: 음절초 ‘ㄱ’의 경우 전설모음 ‘ㅣ’ 앞에서는 <I> 기타모음 앞에서는 <r>로 표기하며 받침은 <I>로 표기한다²⁸⁾.

붙임 4: 두음법칙의 적용 대상인 성 ‘李(리)·林(림)·柳(류)·劉(류)·陸(륙)·梁(량)·羅(라)·呂(려)·廉(렴)·盧(로)·龍(룡)’중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는 성씨 ‘이/리, 임/림, 유/류, 육/륙, 양/량, 나/라, 여/려, 염/렴, 노/로, 용/룡’로 각각 달리 소리 나는대로 표기하도록 한다.²⁹⁾

4.3. 영문성명 음절단위 영자 표기일람표: 쉬운 표기

§2.5에서 지적하였듯이, 언어학적인 지식이나 배경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의 성과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적기가 쉬운 표기이어야 한다. 현행 ‘국어의 로마자표기’는 한글의 음운현상 및 언어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표기법이다. 또한 §4.2에서 제시한 표기 방식도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음절구조

로 발음되는 현상이 있어 ‘ㅅ’으로 발음될 염려가 있으며 ii) 영어의 경우 gy-뒤에는 항상 자음인 l, m, n, p, r, t, v 만 뒤따르지 국어의 이중모음처럼 모음이 뒤따르지 않으며 iii) 문교부(1984)안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성씨표기에서 거의 ‘ㄱ’의 표기가 <k>로 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을 제시한 표기법에 의해 표기하면 gook이 된다. 하지만 gook은 영어에서 동양인을 비하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국’의 경우는 <kook>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27) 인명의 경우 이중모음 앞에서 ‘ㅅ’이 사용되는 경우는 ‘쇄’와 ‘쉬’의 경우이다. 이때 이중모음의 <y, w>는 생략하여 표기한다. 즉 ‘쇄, 쉬’는 각각 shae, shee로 표기한다. 이러한 이유는 i)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sh>로 표기되는 경구개 치경 마찰음 /ʃ/는 국어의 음소에는 없는 소리이지만 영어의 /ʃ/ 소리는 국어의 /s/(즉 ㅅ)이 구개음화 될 때 나는 변이음과 같으며(예: shift, shil, shim, shin, ship, shit, shim) ii) 이러한 변이음은 ‘ㅅ’이 단모음 ‘ㅣ’와 이중모음 앞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단 ‘쉬’<shee>와 구별하기 위하여 ‘시’는 <see>로 표기한다.

28) 이러한 이유는 성씨 ‘이, 임’의 경우 거의 대부분 lee, lim로 표기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며 기타 모음 앞에서는 /r/로 그리고 받침의 경우에는 /l/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9) 2007년 4월30일 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李씨, 柳씨, 羅씨’를 한글맞춤법인 두음법칙에 따라 ‘이씨, 유씨, 나씨’로 표기하도록 한 1996년 10월 25일 대법원 호적 예규 제520호 제2항은 ‘인간의 존엄성’을 다룬 헌법 제10조의 이념과 가치에 반하여 위헌·무효’라며 ‘리, 류, 라’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와 같은 언어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4.2에서 제시한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은 언어학자 및 전문가를 위한 성명표기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이다. 언어학적 배경이 없는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성씨 및 한자/한글이름에 사용되는 글자 756자³⁰⁾의 ‘영문성명 음절단위 영자표기 일람표’(부록 1)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도록 하면 된다. 이 일람표는 한글만 알면 적을 수 있는 쉬운 표기법이다.

5. 인명로마자표기 정착을 위한 제언

본 논문은 행정안전부에서 준비 중인 새 전자주민증, 외교통상부의 여권, 크레딧카드, 학생증 등 공용문서에서 사용하는 영문로마자(영자)성명표기에 대한 표기순서 및 형식, 그리고 표기방식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였으며 성과 한자 및 한글이름에 사용되는 756자의 ‘영문성명 음절단위 영자표기 일람표’라는 사용하기 쉬운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을 제시하였다. 현재 다양각색으로 혼란스럽게 표기하고 있는 인명 로마자표기 정착을 위한 제안을 함으로써 결론을 갈음한다.

지금까지 성명표기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지 않아 다양각색으로 표기하고 있는 성명의 영문표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일안을 새 전자주민증의 사용을 계기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 국어연구원), 여권의 관련 부처인 외교통상부, 전자주민증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에서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반면, 로마자표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어학자, 언어학자, 영어교육자등 학자들은 21세기의 국제화, 정보화 시대의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지위를 인정하고 일반인들의 인식에 부응하여 일본식 로마자표기법에 고집하지 말고 성명의 영자표기법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인들은 지금까지 원칙 없이 다양각색으로 표기하였던 자신과 가족들의 영문이름표기를 국가에서 정한 표기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씨 ‘박’과 ‘최’의 경우 한글의 발음과 너무나 상이한 표기인 <Park, Choi>로 적기보다는 영어철자와 발음의 원칙에 따라 적는 <Baak, Choe>로 표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세대가 지난

30) 한글의 음절수는 철자단위로는 최대 11,172개(모음 21× 자음 19×받침 28(받침 없는 것 포함))이며 음운단위로는 최대 3,192개(모음 21×자음 19×받침 8(받침 없는 것 포함))이다. 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국어의 음절수는 이에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인명에 사용되는 음절수는 성씨 190자, 한자이름에 482자, 그리고 한글이름에 547자만이 사용되고 있다(양병선 2002, 2003a, 2006). 이들 중 중복되는 글자 수 273자를 제외하면 실제 한자와 한글인명에 사용되는 글자 수는 756자 뿐이다.

후에는 지식과 부모,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영문 이름표기를 사용함으로써 국제 시대에 국제적, 경제적, 외교적, 개인적인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영어가 국제어로 인정받고 있는 반면, 한글의 세계화(정원수 2007)를 주장하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다. 한글의 세계화가 필요하듯이 우리 성명의 영문로마자표기도 필요한 때이다. 한글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글을 로마자로 바꾸자는 주장은 피하여야 한다. 한글과 성명의 로마자표기를 우리식대로 하자는 주장은 우리글을 없애고 로마자로 바꾸어 표기 하자는 주장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인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따르면 “지성에서는 헬라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 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르투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로마인”이 마지막 승자로 남아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인의 유연성과 개방성 때문이다. 영어의 국제어로서의 지위를 인정치 않는 배타성과 폐쇄성은 우리 국민의 영문 성명의 통일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뿐 아니라 한글의 세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국어연구원의 ‘로마자표기법’대신 성명 영문로마자(영자)표기가 절실한 이유이다.

참고문헌

- 권재일. (2000). 설득, 이해, 실천의 의지. *새국어생활*, 10(4), 51-62.
- 김문창. (1991). 고유어식 사람이름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1), 76-103.
- 김미경. (2006). *대한민국대표브랜드 한글*. 서울: 자우출판사
- 김복문. (2005). *올바른 우리말 영문표기*. 서울: 무역출판사.
- 김세중. (2001). 성씨의 로마자 표기 시안. 성씨의 로마자 표기 공청회 발표 논문.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미출판물.
- 리의재. (2007). *우리말 지어쓰기와 외국어휘의 한글표기*. 서울: 일월산방
- 김혜숙. (1998). 한국인명의 로마자 표기 순서 및 표기 양상. *사회언어학*, 6(1), 89-111.
- 김혜숙. (2001). 한국인의 로마자 인명표기의 통일성과 일관성: <영어영문학> 게재자를 중심으로. *영어학*, 1(1), 417-435.
- 문화관광부. (2000). *로마자표기 용례사전*. 서울: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 서경수. (1991). 우리말 이름의 로마자 표기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1), 101-113.
- 양병선. (2002). 성씨의 로마자 표기에 관한 제언.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간 *인문과학연구*, 7, 157-195.
- 양병선. (2003a). 우리말 한자 인명 로마자표기에 관한 연구. *대한언어학회 간 언어학*, 11(4), 101-122.
- 양병선. (2003b). 영어의 철자와 발음의 규칙성 및 활용방안: 영어 1음절어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29(3), 245-63.
- 양병선. (2005). 인명로마자표기 실태 및 분석: 국가대표선수를 중심으로. *대한언어학회 간 언어학*, 13(1), 135-158.
- 양병선. (2006). 한글이름 로마자 표기에 관한 제언. *현대문법연구*, 43, 201-24.
- 양병선. (2008). 영어 모음자와 발음의 상관성: CMU Pronouncing Dictionary의 1음절어를 중심으로. *현대문법연구*, 51, 투고중.
- 양병선. (준비중). 국어로마자표기에 관한 연구: 음절단위 영자표기법.
- 외교통상부. (2004). *재외공관 여권업무 실무편람*. 서울: 외교통상부.
- 유만근. (2000). 종전 로마자 표기법의 이론과 실용상 문제점. *새국어생활*, 10(4), 35-50.
- 이상억. (1994). *국어표기 4법 논의: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로마자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희승-안병희. (1994). *한글맞춤법 강의*(고친판). 서울: 신구문화사.
- 정경일. (1997). 한국인명의 로마자표기 양상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39, 171-186.
- 정원수. (2007). 중국어의 한글 표기방안연구: 성모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62, 145-181.
- 정태충. (2005). *음절위주의 정음로마자 표기법*.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 한글학회. (1984). *한글맞춤법*(붙임: 우리말 로마자 적기). 서울: 한글학회.
- 허철구. (2000). 성의 로마자 표기방안. *새국어생활*, 10(4), 75-93.
- MacCarthy, P.D.A. (1969). *New Spelling with Old Letters*. in ed. by W. Haas. *Alphabets for English*.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Zachrisson, R. E. (1970). *Anglic: An International Language with a Survey of English Spelling Reform*. College Park: McGrath Publishing Company.
- Rondthaler, E. and E. J. Lias. (1986). *Dictionary of American Spelling*. New York: The American Language Academy.
- Venezky R. L. (1999). *The American Way of Spel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Wijk, A. 1977. *Regularized English*.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부록 1: 영문성명 음절단위 영자 표기일람표: 음절단위 영자표기

한글이름에 사용되는 한글이름용 음절글자 547자(양병선 2006), 인명용 한자 4,794자(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069호-2007. 2. 15. 공포)에 사용되는 482자(양병선 2003),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0 인구주택 총조사'의 집계결과 나타난 286개 전체 성 중에서 본관 및 한자에 상관없이 한글표기에 의한 성 183개 중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고 표기하는 성씨 10개를 별도로 표기하는 193자를 포함하여 중복되는 글자 수 273자를 제외하고 한자와 한글인명에 사용되는 글자 756자의 음절단위 영자표기

- [ㄱ] 가 gah 각 gaak 간 gaan 잘 gaal 감 gaam 갑 gaap 강 gaang 강진 gaangjun
 갓 gaat 개 gae 객 gak 갠 gan 깎 gal 갱 gang 가 kyah 각 kyaak 거 guh
 격 guk 건 gun 걸 gul 검 gum 겁 gup 게 geh 겨 kyuh 격 kyuk 견 kyun 결
 kyul 검 kyum 겁 kyup 경 kyung 계 kyeoh 고 goh 곡 gok 곧 gon 곧 got
 골 gol 곱 gom 곱 gop 곶 got 공 gong 곶 got 과 kwah 꺾 kwaak 관
 kwaan 팔 kwaal 광 kwaang 꺾 kwae 괴 goe 꺾 goeng 교 kyoh 구 goo 국
 kook 군 goon군 goot 굴 gool 굶 goom 궁 goong 꺾 kwok 권 kwon 쥬
 kwol 쥬 kweh 귀 kwee 규 kyoo 군 kyoon 굴 kyool 그 geu 극 geuk 근
 geun 글 geul 금 geum 급 geup 꺾 geut 궁 geung 기 kee 긴 kin 길 kit
 길 kil 김 kim 김 kip 깃 kit 깊 kip 까 kkah 깔 kkaal 깨 kkae 꺾 kkuk 꺾
 kkeh 꼬 kkoh 꼭 kkok 풍 kkong 꽃 kkot 꾸 kkoo 꼭 kkook 꿀 kkool 꿈
 kkoom 꺾 kkiik 꺾 kkwee
- [ㄴ] 나 nah 낙 naak 난 naan 날 naal 남 naam 남궁 naamgoong 납 naap 낫 naat 냥
 naang 낫 naat 내 nae 낸 nan 널 nal 냄 nam 냥 nyaang 너 nuh 녀 nuk 녀
 nuk 녀 nul 녀 num 녀 nung 네 neh 녀 nyuh 녀 nyuk 년 nyun 녀 nyum 녀
 nyung 녀 nyuk 노 noh 놀 nol 농 nong 높 nop 노 nyoh 네 nyeh 누 noo 눈
 noon 놀 nool 늪 noom 뇌 noe 뉴 nyoo 뇌 nwee 느 neu 늪 neuk 느 neun 늘
 neul 늪 neum 능 neung 뇌 nui 뇌 nee 뇌 nik 뇌 nin 뇌 nil 뇌 nim
- [ㄷ] 다 dah 단 daan 달 daal 댁 daam 댁 daam 댁 daap 닷 daat 당 daang 대 dae
 댁 dak 댁 dan 댁 dat 더 duh 덕 duk 던 dun 댁 dup 덩 dung 도 doh 독
 dok 독고 dokgoh 돈 don 돌 dot 돌 dol 동 dong 동방 dongbaang 돛 dot 되
 doe 두 doo 둔 doon 둘 dool 등 doong 드 deu 득 deuk 든 deun 들 deul 듸
 deum 듸 deup 등 deung 디 dee 딘 din 댁 dim 댁 dit 따 ttah 댁 ttaan 딸
 ttaal 댁 ttaap 댁 ttaang 맏 ttae 댁 ttuil 또 ttoh 푼 ttol 푼 took 뜨 tteu 뜰
 tteul 댁 tteum 댁 tteut 따 ttee
- [ㄹ] 라 rah 락 raak 란 raan 랄 raal 램 raam 램 raap 랫 raat 랑 raang 래 rae 렌
 ran 랫 rat 랑 rang 라 ryah 락 ryaak 랑 ryaang 러 ruh 렉 ruk 런 run 럼
 rum 럼 rup 령 rung 레 reh 러 ryuh 렉 ryuk 런 ryun 령 ryul 럼 ryum 럼
 ryup 령 ryung 레 ryeoh 로 roh 록 rok 론 ron 롤 rol 롬 rom 롬 rop 롯데 rot
 롱 rong 댁 roe 료 ryoh 룡 ryong 루 roo 록 rook 룡 roon 룡 rool 롬 room

- 류 ryoo 룝 ryook 룰 ryoon 룰 ryool 룰 ryoong 르 reu 룝 reuk 른 reun 를
 reul 림 reum 룯 reut 룰 reung 리 lee 린 lin 린 lin 린 lip 린 lip
- [ㄱ]
 마 mah 막 maak 만 maan 말 maal 맑 maak 맘 maam 맛 maat 망 maang
 망절 maangjul 맛 maat 매 mae 맥 mak 맵 map 맹 mang 머 muh 먼 mun
 멀 mul 메 meh 멧 met 며 myuh 먹 myuk 면 myun 덜 myul 명 myung 메
 myeh 모 moh 목 mok 물 mol 몽 mong 묘 myoh 뫼 moe 무 moo 목 mook
 문 moon 물 mool 몽 moong 으 meu 를 meul 미 mee 민 min 밋 mit 밀 mil
 밀 mit
- [ㄴ]
 바 bah 박 baak 반 baan 발 baal 밝 baak 밤 baam 밧 baat 망 baang 발
 baat 배 bae 백 bak 벨 bal 버 buh 빈 bun 벌 bul 범 bum 범 bup 범 but 범
 bung 배 beh 버 byuh 벽 byuk 변 byun 별 byul 병 byung 별 byut 보 boh
 북 bok 본 bon 불 bol 붐 bom 붓 bot 봉 bong 부 boo 북 book 분 boon 불
 bool 붓 boot 봉 boong 비 bee 빈 bin 빌 bil 빙 bip 빗 bit 빙 bing 빗 bit 꺾
 ppah 뺨 ppaan 빵 ppaang 뺨 ppah 뺨 ppoh 뺨 ppoo 뺨 ppeu 뺨 ppeun 뺨
 ppeul 뺨 ppeum 뺨 ppee
- [ㄷ]
 사 sah 사공 sahgong 삭 saak 산 saan 살 saal 삼 saam 삼 saap 상
 saang 쌍 ssaang 새 sae 색 sak 쟂 san 셀 sal 셈 sam 셋 sat 생 sang
 서 suh 서문 suhmoon 식 suk 선 sun 선우 sunwoo 설 sul 섬 sum 섭
 sup 셋 sut 성 sung 설 sup 세 seh 쟂 sen 셀 sel 셈 sem 셋 set 소 soh
 소방 soh bong 속 sok 손 sohn 술 sol 숨 som 습 sop 솟 sot 송 song 쇠
 shae 쇠 soe 수 soo 숙 sook 순 soon 술 sool 숨 soom 솟 soot 송 soong
 숲 soop 쉬 shee 스 seu 슬 seul 습 seum 습 seup 승 seung 시
 see 식 shik 신 shin 실 shil 심 shim 십 ship shit 징 shing 짜 ssah
 짝 ssaak 쌀 ssaal 쑈 ssom 쓰 sseu 씨 ssee
- [ㅇ]
 아 ah 악 aak 안 aan 알 aal 앓 aam 암 aam 압 aap 앳 aat 앙 aang 알 aap
 애 ae 액 ak 앵 ang 야 yah 약 yaak 얀 yaan 알 yaal 압 yaam 앙 yaang 애
 yae 어 uh 어금 uhgeum 억 uk 언 un 일 ul 엄 um 업 up 예 eh 엔 en 여
 yuh 역 yuk 연 yun 열 yul 염 yum 엽 yup 영 yung 예 yeh 오 oh 옥 ok 온
 on 울 ul 울 ul 음 om 옷 ot 응 ong 와 wah 완 waan 왈 waal 왕 waang 왜
 wae 외 oe 요 yoh 욱 yok 은 yon 용 yong 우 woo 욱 wook 운 woon 울
 wool 움 woom 옷 woot 응 woong 위 woh 윈 won 월 wol 위 wee 윗 wit
 유 yoo 욱 yook 윤 yoon 울 yool 움 yoom 용 yoong 으 eu 욱 euk 은 eun
 을 eul 음 eum 음 eup 응 eung 의 ui 이 yee 익 ik 인 in 일 il 임 im 입 ip
 잇 it 잉 ing 잇 it 잎 ip
- [ㅈ]
 자 jah 작 jaak 잔 jaan 잘 jaal 잠 jaam 잡 jaap 장 jaang 장곡 jaanggok 재
 jae 쟁 jang 저 juh 적 juk 진 jun 절 jul 점 jum 점 jup 짓 jut 정 jung 제
 jeh 제갈 jehgaal 조 joh 죽 jok 존 jon 졸 jol 중 jong 좋 jot 좌 jwaa 죄 joe
 주 joo 죽 jook 준 joon 줄 jool 중 joong 즈 jeu 즉 jeuk 즐 jeul 줍 jeup 증
 jeung 지 jee 직 jik 진 jin 질 jil 짐 jim 집 jip 징 jing 짜 tchah 짝 tchaak

- 짬 tchaam 쪽 tchok 찌 tchee
- [ㄷ] 차 chah 착 chaak 찬 chaan 찰 chaan চাল chaal 참 chaam 창 chaang 찻 chaat 채 chae 책 chak 처 chuh 척 chuk 천 chun 철 chul 침 chum 칩 chup 칫 chut 칭 chung 체 cheh 초 choh 축 chok 촌 chon 춤 chom 종 chong 찰 chwaal 쇠 choe 추 choo 축 chook 춘 choon 출 chool 춤 choom 증 choong 쉼 chweh 취 chwee 츠 cheu 축 cheuk 즐 cheul 춤 cheum 흥 cheung 치 chee 칩 chik 친 chin 칠 chil 침 chim 칩 chip 칭 ching
- [ㄱ] 카 kah 칸 kaan 깨 kae 켜 ken 커 kuh 콩 kong 쾌 kwae 쿠 koo 쿨 kool 크 keu 큰 keun 클 keul 큼 keum 키 kee
- [ㄷ] 타 tah 탁 taak 탄 taan 탈 taal 탐 taam 탑 taap 탕 taang 태 tae 택 tak 탕 tang 터 tuh 텃 tut 토 toh 톨 tol 통 tong 퇴 toe 투 too 트 teu 특 teuk 튼 teun 틀 teul 톼 teum 티 tee
- [ㅍ] 파 pah 판 paan 팔 paal pang paang 꽤 pae 팽 pang 꺾 pyaak 편 pyun 펴m pyum 평 pyung 폐 pyeh 포 poh 폭 pok 풍 pong 퍼 puh 펄 pul 꺾 pyuh 표 pyoh 푸 poo 풀 pool 품 poom 풋 poot 풍 poong 픈 peun 꺾 pee 편 pin 필 pil 펴m pim 꺾 pip
- [ㅎ] 하 hah 학 haak 한 haan 할 haal 함 haam 합 haap 항 haang 해 hae 핵 hak 햇 hat 행 hang 향 hyaang 허 huh 현 hun 혈 hul 험 hum 혁 hyuk 현 hyun 혈 hyul 협 hyum 협 hyup 형 hyung 혜 hyeh 호 hoh 흑 hok 혼 hon 홀 hol 홈 hom 흥 hong 화 hwah 화 hwaak 환 hwaan 활 hwaal 황 hwaang 황보 hwaangboh 햇 hwaet 회 hoe 획 hoek 횡 hoeng 효 hyoh 후 hoo 훈 hoon 흥 hoong 흰 hwon 쉼 hweh 휘 hwee 휴 hyoo 홀 hyool 흥 hyoong 흐 heu 흑 heuk 흔 heun 흘 heul 흠 heum 흡 heup 흥 heung 흙 heuk 희 hee 힌 hin 히 hee 힌 hin 힐 hil 힘 him

양병선

560-75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영미언어문화전공

전화: (063)220-2213

이메일: bsyang@jj.ac.kr

Received: 30 December, 2007

Revised: 5 March, 2008

Accepted: 15 March, 2008